2018년 5월 부모교육자료

혜천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혜천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생활하시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하며, 놀이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지도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실 때도 많으셨지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힘내시고 좀 더 좋은 부모님이 되어보세요.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 카루소의 인생을 바꾼 어머니의 글과 오늘의 작은 그림 한 장과 작고 간단한 자녀와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기억해서 교육에 활용하는 혜천유치원 장미반 어머니의 작품과 글을 읽어보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카루소의 인생을 바꾼 어머니의 글]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을 때 교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네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다."

그 소년은 큰 좌절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꼬옥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이다. 카루소는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의 말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이다. 음악 선생의 부정적인 말 앞에 굴복했다면 그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말은 소리나 파장이 아니라 힘이다.
말은 심은대로 열매를 거두는 생명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

글*나관호 목사(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2018.03.26.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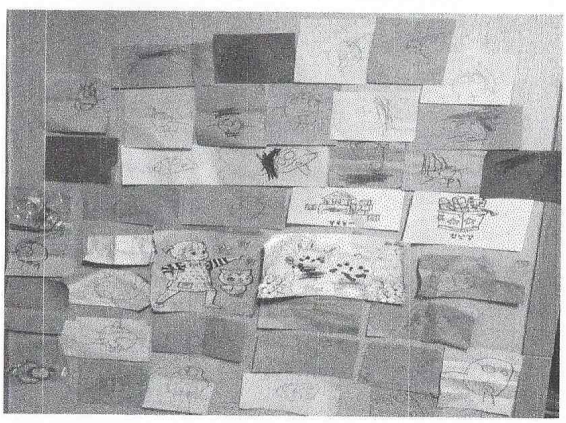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해", 슬픈 마음 위로하고 "괜찮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 나누며~
요즘 애창곡이다. 버스에서 집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느냐 흥얼거린다.
저런 조만한 입에서 저런 노래를 하니 참 예쁘다. 마음이 참 예쁘다. 참 귀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요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어느날 길을 가던 중 십자가를 보며 "엄마 십자가야"
"응 십자가네~"
"엄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
"맞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지"
식사를 하기 전에도 "믿음, 소망, 사랑 감사기도 시작" 하며 기도를 한다.
참 신기하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 모조리 다 따라한다. 그리고 선생님 흉내도 내는 걸 보면 선생님을 참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조금 신기하기도 하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하율이 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며 나도 또 한 번 공부하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내 행동과 언행에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다. 하율이는 모델링이 워낙 강해서 한 번 한 것도 기억해내서 따라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다. 매일매일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을 좀 더 조심해야 겠다.

2018.03.27.화요일

오늘도 여전히 학교를 마치고 하율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러 갔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였다.
하율이가 나에게 물어봤다.
"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왜 돌아 가셨는지 알아?"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대. 예수님 마음은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밥도 잘 먹고 양치도 잘해야 해 "
"맞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 하율인 어떤 마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 마음이 있어 엄마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
"예수님은 하율이 마음 속에 계셔서 하율이에게 진짜 보이지 않아. 하율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예수님이 하율이 안에 계셔서 그런거야"
"엄마 나는 예수님 마음 가질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거야"
하루하루가 놀랍고 새롭다. 이 작고 작은 아이에게 이런 말이 나올줄이야...
버스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께서도 하율이 에게 참 똘망하다고 하시면서 웃으셨다.
아마 오늘 예배시간에 배운 것 같다. 하율이가 참 대견스럽다.
유치원을 다니면서 신기할 만큼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 하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하율이가 이제는 양치를 스스로 하려고 한다.
가방을 절대 매고 등원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율이가 이제는 스스로 가방을 매고 등원을 한다.
예수님은 그저 교회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했던 하율이가 이제는 하율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갖는 다고 이야기 한다.
전 날 밤 기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하율이가 이제는 내일도 유치원에 가는 날이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매일매일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아직 유치원에 다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율이의 행동 하나 하나가 바뀌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하율이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기관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2018.04.01.

오늘은 하율이가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 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매일 유치원에서 그려오는 종이를 집 한쪽 벽면에 붙여서 전시해 줬는데 자기 작품이 참 많아서 행복 하다고 한다.
난 그저 붙여 줬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하다니...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하율이 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혜천유치원 장미반 어머니의 그림과 글]

2018. 5. 1. 화

혜 천 유 치 원 장